

사료·약품회사들, 양돈장 전산화 서비스 본격 돌입

-취재 : 김 동 성 -

양돈농가들에게 배합사료와 동물약품을 공급하면서 세미나, 농장방문 등을 통해 사양, 질병관리 등 기술지도를 해오던 사료·동물약품회사들이 양돈농가들에게 한 차원 높은 양돈장의 전산화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동안 양돈농가들이 사료·동물약품업체의 영업직 사원들을 통해 많은 사양기술과 정보를 습득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료·동물약품회사들은 연 2회 정도 중앙과 지방에서 양축농가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실시해 오고 있고, 또 농장을 방문하면서 기술정보 제공과 함께 사료·약품을 판매해 왔다.

그러나 쇠고기의 수입개방시기가 확정되고, 1년후엔 닭고기마저 수입개방될 전망이고 보면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제 경쟁시대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제 과거와 같이 돼지 한 마리를 팔아서 수만원의 순익을 올리던 시대는 지나갔다.

또한 최근들어 양돈장 직원들의 임금상승과 인력수급의 어려움, 사육규모의 확대 등 양돈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인력, 관리체계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사료·약품회사들은 양돈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컴퓨터의 도입과 운영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양돈장 경영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기에 이르렀다.

양돈장에 컴퓨터를 설치하면 농장현황 및 성적을 손쉽게 분석할 수 있고, 매일 매일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어 현장작업 및 관리의 표준화를 기할 수 있다. 또 방역프로그램에 따라 철저한 방역관리를 할 수 있고, 출하계획과 자금운영계획 등의 예측도 가능해 적기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궁극적으로 양돈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양돈장에 컴퓨터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는 컴퓨터 전문업체는 (주)필산(대표: 추태호, 구 축산서비스)과 다산컴퓨터가 있다. 이들 업체들은 '87년부터 주로 종돈장과 대규모 양돈장, 낙농농가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왔다.

그러던중 사료회사로는 천흥제일사료와 제일제당, 푸리나코리아에서 양돈장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시작했고, 동물약품회사에서는 서울신약이 마켓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업체인 (주)필산과 다산컴퓨터는 종돈장과 대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20~30개 농장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급했다. 그리고 사료·약품업체에서도 10~15개 농장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급, 30~45개 양돈장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업체들은 양돈의 경우 종돈장과 모돈 100두, 즉 돼지 1,000두 규모의 양돈장에서는 컴퓨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90년 3월 현재 종돈장은 170여개소, 그리고 돼지 사육두수 1,000두~4,999두 규모가 306개 농장, 5,000~9,999두 규모가 26개 농장, 10,000두 이상 규모가 10개 농장으로 1,000두 이상 양돈장은 모두 342개 업체에 달한다. 종돈장과 1,000두 이상 양돈장을 컴퓨터 설치 가능 업체로 보았을 때 현재 양돈장의 컴퓨터 보급율은 10%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잠재적인 컴퓨터 설치농장이라 할 수 있는 500~999두 규모의 농장이 800개 업체로 이들 농장까지 컴퓨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시장이 결코 적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 사료·동물약품회사들은 양돈농가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산화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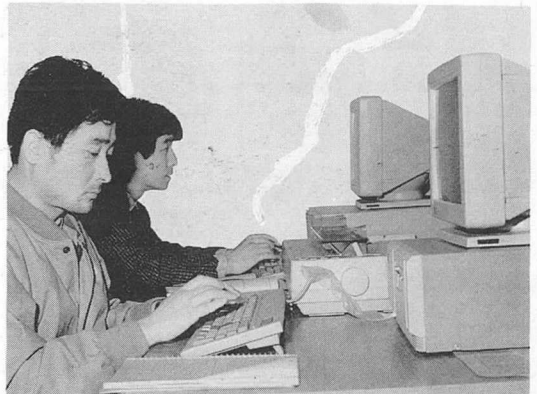
천후제일사료의 양돈장 전산화 서비스

과학기술원산하 시스템공학센터에서 '83년부터 개발한 양돈컴퓨터 프로그램을 '87년말 천후제일사료가 국내 양돈장 실정에 맞게 새로 개발했다.

천후제일사료는 자체 회사에서 개발한 양돈장 전용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피팜스(PIFAMS, Pig Farm Management System)로 명명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양돈농가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천후제일사료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위해 회사내에 전산실을 설치했고, 양돈장 컴퓨터 서비스를 위해 양돈 PM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팜스에는 연도별, 월별 사료 생산량과 돼지 사육두수, 모돈두수, 자돈생산두수, 출하두수 등 전국의 양돈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 피팜스는 개체관리는 물론, 일일작업지시, 모돈회전율 분석, 생산비 분석을 손쉽게 할 수 있고, 양돈장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천후제일사료는 이 프로그램을 규모가 큰 농장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원가를 밀도는 가격에 공급하고 있고(고객에 한해), 중소규모 농장(모돈 100두 미만)에는 대리점을 통해 농장의 생산성 분석과 경영진단 등을 해 주고 있다. 따라서 대리점을 통해 농장의 생산성 분석 등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들은 한장의 종이에 종부, 분만, 이유, 이동보고 등 1일 발생되는 내용을 개체별로 간단히 기록하여 대리점에 갖다주면 문제점 분석과 아울러 그에 필요한 기술지도 등을 해 주고 있다.

피팜스의 특징은 농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장일보, 개체성적 분석, 작업지시, 산차관리, 혈통관리, SPIA산출, 검정성적, 생산비 분석, 각종지표 예측,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어떠한 하드웨어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퓨리나코리아의 양돈장 전산화 서비스

퓨리나코리아는 '89년 8월 미국 본사에서 많은 돈을 들여 불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돈장 프로그램을 기초로 우리나라 양돈여건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유럽이 기술·노동집약 양돈으로 우리나라의 여건과 비슷하기 때문.



이 프로그램의 명칭은 「퓨리나 양돈관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89년 10월부터 양돈장에 보급하기 시작, 현재까지 6개 농장에 보급했다. 컴퓨터와 컴퓨터 프로그램은 용역업체를 통해 양돈농가에 보급하고 자료분석 등 기술적 서비스는 퓨리나코리아가 맡아서 한다.

퓨리나코리아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크게 생산부와 재무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생산부문에서는 ▲ 일일관리사항 ▲ 일일작업기록 ▲ 통계처리 및 생산성 분석 등이, 재무부문에서는 돼지와 사료의 이동과 구입, 재고, 사용량 및 비용과 재무분석, 생산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퓨리나코리아는 이 프로그램을 100만원에 보급하고 있는데, 하드웨어까지 합쳐 200~220만원이면 농장에 설치할 수 있다.

퓨리나코리아는 컴퓨터를 설치한 농장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양축가들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방문해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역할은 주로 지역소장들이 담당하고 있다. 지역소장들은 컴퓨터에 나타난 자료를 통해 그 농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주고 그에 알맞는 대책을 세워 양축가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 해 주고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다.

김원태 부장은 「컴퓨터는 매우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비스가 부족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면이 많다」고 지적하고, 「사회회사들은 전국에 대리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양축가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일제당의 양돈장 전산화 서비스



제일제당 사료사업부부는 '89년 12월부터 「제일제당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양돈농가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제일제당은 '89년에 양돈용, 양계용, 낙농육우용, 대리점·특약점용 등 4종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 (주)필산과 계약을 맺고 (주)필산을 통해 프로그램을 양돈농가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즉 (주)필산이 프로그램과 컴퓨터를 보급해 주고 있는 형태다.

이 프로그램의 가격은 100만원이고, 하드웨어는 기종에 따라 100~130만원인데, 농장에서는 200~230만원이면 컴퓨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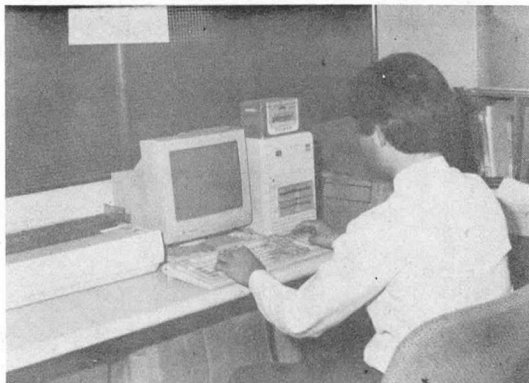
제일제당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 번식관리 ▲ 비육돈관리 ▲ 종돈관리 ▲ 회계관리 등 4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제일제당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도입한 양돈장은 전국 120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대리점의 지역소장으로부터 컴퓨터 자료를 통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에 관한 기술지도도 받을 수 있다.

제일제당은 작년말 시험농장에 이 프로그램을 보급한데 이어 지금까지 3개 고객농장에 프로그램을 보급

했다. 제일제당 역시 컴퓨터를 설치하지 못하는 중소규모 양돈장을 대상으로 대리점을 통해 전산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농장에서는 개체별로 간단한 기록을 한 후 이를 대리점에 갖다 주면 경영진단과 함께 기술지도도 받을 수 있다.

제일제당의 주영진대리는 「이 프로그램을 농장에 도입함으로써 모든의 생산성 향상과 현장작업 및 관리의 표준화, 철저한 방역관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약의 양돈장 전산화서비스



동물약품회사중 현재로선 유일하게 양돈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 양돈농가들에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서울신약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명칭은 「서울신약 양돈종합점검 프로그램」으로 '89년 12월부터 금년 1월에 걸쳐 개발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자료를 모든 단위(30두 규모)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신약에서는 다른 사료회사와 같이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와 함께 직접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프로그램에 양돈장이 도달해야 할 각종 생산목표치(예를 들면 산자수, 이유두수, 사료요구율, 출하두수 등)를 설정해 놓고, 이에 미달되는 양돈농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농장의 문제점을 파

악케 한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전국의 양돈현황(두수, 호수, 소비량, 사료생산량, 시장)과 생산비, 자금소요계획, 방역프로그램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모든두수만 입력시키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신약은 농장방문과 세미나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이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는데, 본회 인천지부, 인천지부, 무안지부, 수원지부, 이리익산지부 등이 세미나를 통해 교육을 받았다.

서울신약의 김인호이사는 「이 프로그램은 농장의 월간 총 사료소비량과 출하두수만 알아도 Sheet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이사는 또 「생산성 목표치를 제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농장의 현 실정을 파악케 할 수 있고, 경영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며, 「양돈농가들이 농장의 실적을 기록만 해 놓으면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15개 농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국제경쟁시대를 맞아 사료·약품회사들이 체계적인 양돈장 경영을 돕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경영분석과 기술지도를 해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컴퓨터를 설치한 농장도 자료를 분석해 주는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무실에 전시용으로 진열해 놓고 있는 양돈장도 더러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회사들의 전산서비스 업무는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컴퓨터 가격의 지속적 하락, 컴퓨터 교육확대, 양돈마진의 축소, 간편함 등으로 컴퓨터의 설치는 2~3년 내에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업체가 적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전국적인 대리점망을 갖고 있는 사료·약품회사들의 전산서비스로 컴퓨터가 양돈장에 확대 보급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에서 승리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